

내시경적역행성담관조영술 후에 발생한 괴저성 담낭염(gangrenous cholecystitis) 1예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 소화기연구소

이진우*, 조영덕 · 문종호 · 김연수 · 이문성 · 심찬섭

일반적으로 진단목적의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후에는 약 5-6%, 치료목적의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후에는 약 4-10% 에서 합병증이 발생되며 이중 생명을 위협할만한 중독한 합병증은 각각 0.4%, 0.05-1.6% 에서 보고되고 있다. 이 중 괴저성 담낭염(gangrenous cholecystitis)의 경우 급성 담낭염의 8-12% 에서 발생하는 중독한 합병증으로 대부분 담석을 동반하지만 드물게는 담석이 없이도 발생할 수 있다. 담낭이 괴사되는 데에는 담석에 의한 담낭관의 폐쇄가 우선적인 원인이 되며 그 외에 혈관질환에 의한 허혈, 세균침윤, 화학반응에 의한 염증, 종양에 의한 담낭관 폐쇄 등이 주 원인이 되지만 담췌관 조영술후에 발생한 경우도 극히 드물게 보고되고 있다. 그 기전으로는 아마도 조영제 주입 후에 담석에 의한 담낭관의 폐쇄와 이로 인한 담낭주위 염증으로 인해 담낭의 운동성의 증가와 배출지연으로 생겼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연자들은 무증상의 담석증으로 내원한 65세 남자 환자에서 진단 목적으로 내시경적역행성담췌관조영술을 시행한 후에 발생하여 경피경간 담낭 배액술후 중세 호전되었고 그후에 담낭절제술을 시행했던 괴저성 담낭염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중례) 65세된 남자가 2년전 우연히 발견된 담석증에 대한 수술을 받기 위해 내원하였다. 과거력상 특이사항 없었고 소주 1병/주3회 가량의 음주력을 가지고 있었다. 계통적 문진상 발열, 오한, 복통, 소화불량 등은 없었으며 신체 검사상 혈압 120/80mmHg, 맥박 76 회/분, 호흡수 16회/분, 체온 36.6℃ 였다. 두경부 소견 및 흉부 소견상 특이소견 없었으며 복부 소견상 장음은 정상적으로 들렸으며 압통이나 반사통은 없었다. 검사실 소견에서 일반 혈액 검사상 백혈구 5,900/mm³, 헤모글로빈 15.8 g/dL, 헤마토크리트 42.4%, 혈소판 187,000/mm³, 일반 생화학 검사상 AST/ALT 19/20 IU/L, 총단백/알부민 5.9/3.9 g/dL, 총빌리루빈 1.0 mg/dL, ALP 57 IU/L, LDH 263 IU/L, 혈액 응고 검사상 프로트롬빈 시간은 11.3, (INR 0.73)이었다. 복부 초음파 검사상 담낭내에 다수의 고에코의 조그만 음향음영을 동반한 담석들이 관찰되었고 내시경적역행성담췌관조영술에서 담낭내의 다수의 음영결손과 함께 담낭관이 확장된 소견을 보였다. 환자는 담관조영술 다음날부터 심한 복통과 함께 고열이 동반되었고 혈압이 80/50 mmHg 까지 떨어져 복부초음파검사를 하였으며 담낭주변에 저에코충이 관찰되며 담낭벽이 이전에 비해 두꺼워져 있는 소견이 있었고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술에서 혈액으로 의심되는 액성물질이 담낭주위에 고여있는 괴저성 담낭염 소견을 보여 응급으로 경피경간 담낭배액술을 시행하였다. 환자는 이후 빠른 회복을 보였으며 환자 상태 호전된 후 일반외과로 전원되어 담낭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수술시 담낭주위에 소량의 혈성액체가 고여 있었으며 담낭벽은 두꺼워져 있고 점막은 전체적으로 손상되어 있었다.

원발성 담즙성 경변증의 임상상: 단일 센터 경험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내과학교실

최문석*, 이준혁, 고광철, 백승운, 이종렬, 이종철, 최규완

목적: 원발성 담즙성 경변증은 서구에는 흔한 질환이지만 국내에서는 20 예 내외의 산발적인 보고가 있을 뿐인 희귀한 질환이다. 최근, 연자 등은 단일 센터로써는 많은 수의 원발성 담즙성 경변증을 경험하였기에 우리나라에서의 임상상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자 하였다.

방법: 1995년 10월에서 1999년 2월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원발성 담즙성 경변증으로 진단된 16 예들의 임상상을 전향적인 프로토콜에 의해 조사하였다. 원발성 담즙성 간경변의 진단은 1) 생화학적인 담즙정체가 있고, 2) 항미토콘드리아항체가 양성이며, 3) 조직학적으로 원발성 담즙성 간경변에 합당한 경우로 하였다.

결과: 남녀비는 1:7, 나이의 중앙값은 59 세(38-71)였다. 질병이 발견된 동기는 소양증의 발생(37.5%)과 특이 증상 없이 검사 도중 발견된 간 기능 이상(31.3%)이 가장 흔하였으며 구갈 및 구안(12.5%), 팽달(6.3%), 만성 피로감(6.3%), 열변(6.3%) 등으로 발현되기도 하였다. 가장 흔히 동반된 질환은 쇼그렌 증후군(25%)이었으며, 관절병증(12.5%), 레이노현상(6.3%), 당뇨(6.5%) 등이 동반되기도 하였다. 혈청학적 검사상 항미토콘드리아 항체는 전체, 형상항핵항체는 33.3%, 류마티드 인자는 33.3%에서 양성이었다. 지질검사상 총콜레스테롤치가 18.8%, LDL 콜레스테롤치는 50.0%에서 증가되어 고지혈증이 흔히 동반됨을 알 수 있었다. 면역글로불린은 IgM의 상승이 64.3%로써 가장 흔히 동반되었고, IgA (28.6%) 및 IgG (20.0%)의 상승도 일부에서 관찰되었다. 담즙산의 증가가 60.0%에서 관찰되었다. 2 예(18.8%)에서 식도정맥류가 관찰되기도 하였다. 골밀도검사상 골감소증 33.3%, 골다공증 33.3%이어서 상당수에서 골대사의 이상이 동반되었다. 대부분이 UDCA 에 생화학적 반응을 보였으나 2 예(12.5%)에서는 치료 도중 증상의 재발과 검사실 소견의 재악화가 관찰되었다.

결론: 연자 등이 경험한 우리나라 원발성 담즙성 경변증은 서양에 비해 소양증이 다소 드문 경향을 보였으나 기타 임상상은 서양과 유사하였다. 임상적 경과 및 예후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